

SNS 이용자의 정치참여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강진숙* · 김지연**

본 연구의 목적은 SNS 이용자들의 투표 인증샷 참여 경험과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정치참여 의미와 가능성을 도출하는 데 있다. 특히 ‘SNS 투표 인증샷’에 초점을 둔 이유는 이 행위가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 활동이면서 이용자의 창조적 상상과 집단지성의 의미와 가능성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 자원은 뉴미디어 시대의 이용자 행위와 정치적 실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빌렘 플루서의 기술적 상상과 창조적 상상가, 피에르 레비의 집단지성 논의들에 기초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인증샷 경험을 지닌 SNS 이용자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후 수집된 자료들에 현상학적 분석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때 연구자는 SNS 이용자와 상호주관성의 입장을 견지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맥락적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의 체현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괄호치기’한 채 있는 그대로의 현상과 의미 구조에 접근한다. ‘사태(die Sachen) 그 자체의 의미’를 탐색하는 현상학적 연구는 SNS 이용자들의 정치참여 경험 자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엄밀한 학’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기술적 상상, 창조적 상상가, 집단지성, SNS 투표 인증샷, 현상학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영화는 초당 24번의 진실이다!”(Virilio, 1989/2004, 98쪽) 이것은 1960년대의 누벨마그 영화감독이 자 프랑스 68혁명의 중심인물이었던 장 퓌코다르의 말이다. 즉 카메라의 기술적 속도는 초당 24회 연속 촬영을 통해 사물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당시의 진실이었다. 물론 지금 그 기술적 속도는 가속화되었고, 진실보다는 조작의 가능성이 더 커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촌각의 진실을 다루는 상황들은 SNS와 태블릿 PC가 대중화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1초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투표 행위가 그것이다. 오가는 거리의 시간을 제외한다면, 특정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행위는 단 1초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1초의 행위를 반영구적으로 지속하는 행위가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른바 투표 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인터넷과 SNS에 올리는 ‘투표 인증샷’ 행위가 그것이다. 더욱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된 2012년 4·11 총선 때에는 투표 인증 사진이 담긴 트윗(인증샷과 하이퍼링크가 포함된 트윗)이 재전송(리트윗)을 포함하여 투표 시간 동안 총 6만여 건이나 트위터에 올라왔고(양홍주, 2012. 4. 11), 그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웠던 2012년 12·19 대선 때에는 투표 인증샷 트윗을 올린 이용자만 해도 3만 7천여 명에 달하는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부교수 (jskang1@cau.ac.kr)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pmgykim@hanmail.net)

등 ‘투표 인증샷’이 새로운 정치참여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 참여는 인터넷과 SNS에서 종일 화제가 되었으며, 일반시민들도 자발적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인증샷에 적극 동참하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일단 SNS가 온라인상의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특히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그들의 투표율을 올리는 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SNS 투표 인증샷’은 선거문화의 혁명이라 불릴 만큼 SNS를 통한 정치참여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웹2.0 시대에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SNS가 스마트폰과 결합됨으로써 정보 생산과 분배의 주체가 이용자 개인으로 변화하고, 정보 공유의 공간이 확장되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개방과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SNS는 인적·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상호작용의 플랫폼으로서,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이용자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SNS는 속보성, 연결성,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 공유, 관계 형성,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후보자와의 친밀도를 높이고 그 자체가 정치적 공론장이 되는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SNS 이용자는 SNS라고 하는 소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존의 제도·규제 중심적 아날로그 정치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탈중심적, 다원적, 생활 중심적 디지털 정치참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 6·2 지방선거 때 투표 인증샷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의 영향력이 확산되자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10답’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적 허용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않고 인증샷의 위법 여부에 대한 혼란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과 지적이 있었다.¹⁾ 그렇다면 위법시비와 위협을 무릅쓰고 SNS 이용자들은 왜 투표 인증샷을 올렸을까? 왜 투표 인증샷은 불과 3년만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새로운 정치참여 문화로 자리잡게 된 것인가? 이러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된다. 우선, SNS 이용자들은 SNS 투표 인증샷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여자들의 SNS 이용방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참여 경험에 기초할 때 SNS 정치참여의 의미와 가능성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고려한 본 연구의 목적은 SNS 이용자들의 투표 인증샷 참여 경험과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이용자 정치참여의 의미와 가능성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용자 정치참여의 사례로서 ‘SNS 투표 인증샷’에 초점을 둔 이유는 이 행위가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 활동이면서 이용자의 창조적 상상과 집단지성의 의미와 가능성을 표출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 자원으로서 유럽의 디지털 사상가인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의 기술적 상상과 창조적 상상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피에르 레비(Pierre Lévy)의 집단지성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두 사상가들의 논의들에 관심을 둔 이유는 모두 뉴미디어 시대의 이용자의 행위와 정치적 실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중심 방법론인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SNS 이용자의

1)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10답’에서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투표 독려를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대중 인사 중에서도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 중립적 인사를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고강변한, 2011. 10. 25), 2011년 4월 재보궐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와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선관위에 주어진 유권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 지침이자 법적 안정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유권자자유투트, 2011. 10. 25;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839535>).

정치참여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인증샷 행위 경험을 지닌 SNS 이용자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 수집된 자료들을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의 태도는 SNS 이용자와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입장을 견지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맥락적 상황을 고려하고, SNS 이용자의 체험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괄호치기’한 채 있는 그대로의 현상과 의미 구조에 접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태(die Sachen) 그 자체의 의미’를 탐색하는 현상학적 연구는 SNS 이용자들의 정치참여 경험 자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엄밀한 학’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2. SNS 이용자와 실천에 대한 이론적 전제

이용자들의 온라인 시민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정치참여의 사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SNS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SNS의 정치참여 효과 연구(조진만, 2011), 소셜 미디어, 특히 마이크로 블로그 공론장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류정호·이동훈, 2011), SNS를 포함한 온라인 정치참여의 정부 규제 논의(윤성이, 2008; 윤성이·송경재·민희, 2010; 임혁백, 2011; 장우영, 2008, 2010; 탁진영, 2011), ‘투표 인증샷’을 키워드로 수집된 트윗들의 내용분석을 통한 SNS 이용자의 이용동기 연구(이미나·서희정·김현아, 2012)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SNS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양적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왔는데, 그 연구성과를 기초로 보다 더 이용자들의 경험이나 인식을 심층분석하고 의미화할 수 있는 질적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이용자의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디지털 환경과 이용자 인식에 대한 질적 분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SNS 이용자들이 문자와 이미지를 다루는 행위는 이미 우리 사회의 정치적 지각 변동을 설명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플루서의 ‘기술적 상상과 창조적 이용자’론과 레비의 ‘집단지성’은 SNS 이용자의 정치참여 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의미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플루서의 기술적 상상을 구현하는 창조적 이용자에 대한 사유가 SNS 이용자의 정치참여 행태를 유추하게 한다면, 레비의 집단지성에 대한 사유는 SNS 이용자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공간의 문화적 특성을 추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SNS 이용자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미 해석을 위해 두 미디어 사상가의 철학적, 문화적 관점을 탐색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1) 기술적 상상과 창조적 이용자

우선 플루서는 탈문자 시대의 미디어 문화를 ‘기술적 형상’으로, 이용자를 능동적 행위의 주체라는 설정을 넘어서서 창의적 미디어 이용을 강조한 ‘창조적 상상가’로 제시한다(강진숙, 2006; 2010). 그는 인류 문화를 ‘선사시대, 문자시대, 탈문자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의 지배적인 코드화 방식을 그림, 텍스트, 기술적 형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탈문자시대를 ‘기술적 형상시대’라 칭하며, 사진, 영화, 컴퓨터 등의 기술적 형상을 창조하고 해독하는 ‘기술적 상상’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적 형상이

그물망처럼 짜인 텔레마틱(telematik) 사회의 대안적 가능성을 주시함으로써(Flusser, 1997/2004) 창조적 상상가로서의 미디어 이용자를 제시하였다. 기술적 형상시대의 이용자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기술적 상상으로 0차원의 시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Flusser, 1996/2001).

플루서 이론에 의할 때, SNS는 정보의 획득, 보존, 공유, 분배의 측면에서 담론형 미디어이기도 하고, 정보의 교환적 측면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사회참여 독려 기능을 하는 대화형 미디어이기도 하다. 모든 미디어는 처음부터 담론형과 대화형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미디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SNS의 미디어 문화는 SNS 이용자가 기술적 상상을 통해 창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담론형과 대화형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즉, SNS 이용자는 각자의 소셜 미디어 공간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가상 체험의 세계를 창조”하고(강진숙, 2010, 9쪽), 이 과정에서 투표 인증샷과 같이 다양한 SNS의 사진(디지털 이미지)과 콘텐츠를 재구성함으로써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미학적 창조 행위도 이루어진다. 인증샷으로 표현되는 사진은 최초의 기술적 형상으로, 반영적이고 사변적이어서 개념들을 상상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Flusser, 1996/2001). 또한 플루서는 사진기가 기술적·구조적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이 복잡한 과정을 셔터 하나로 작동시킴으로써 훌륭한 사진을 생산해 내는 기능적으로 간단한 유희적 도구라고 표현하였다(Flusser, 1983/1999). 사진기의 복잡한 구조는 사진가의 창조적인 상상력과 독창성, 자율성을 통해 비로소 그 기능과 의미가 발현된다. 즉, SNS 이용자가 기술적 형상으로서의 ‘사진’을 통해 ‘투표 인증샷’을 창의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이용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대화형 매체 기능을 함으로써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미디어에 대한 수동적 저항이 아닌 능동적으로 대화망에 참여함으로써 “미디어를 통해 작동하는 코드들을 해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코드를 창조”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등 대안적 이용행위를 한다(강진숙, 2010, 9쪽). 이와 같이 열린 망형 대화에의 참여는 곧 인간의 ‘정치적 참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플루서의 경고처럼 테크노 코드, 특히 ‘대중적 코드’로서의 SNS 투표 인증샷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왜곡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대중적 기만은 민감하게 주시할 일이다. 미래의 문자 언어인 테크노 코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전문가들만이 그 코드를 해독할 수 있는 ‘엘리트적인 기술적 형상’이고, 다른 하나는 해독되지 않고 그대로 수용되는 ‘대중적 기술적 형상’이다. 사진의 경우 해독되지 않고 그대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후자에 속하며, 이로써 대중의 기만이 우려된다. 따라서 사진가로서의 이용자는 창조적인 상상력과 자율성을 통해 사진을 찍고(정치적 동작), 올려진 사진(기술적 형상)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독할 줄 아는 기술적 상상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플루서의 이론을 통해 SNS 투표 인증샷을 기술적 상상의 결과로, SNS 이용자를 창조적 상상가로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기술적 형상으로서의 투표 인증샷, 그리고 창조적 상상가로서의 SNS 이용자들의 투표 인증샷을 통한 정치참여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SNS를 통한 사회적 참여와 실시간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기늬해본다. 요컨대, SNS 이용자들은 창조적 상상가로서 자율적으로 SNS를 유희하고 구성하며, 타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끊임없이 사회적 관계를 생산해낼 것이다.

2) 집단지성과 SNS 이용 행위

앞서 SNS의 미디어 문화와 이용자적 특성으로서 플루서 이론을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SNS의 공간문화적 특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 레비가 피력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레비는 현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등장한 사이버 공간을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집단지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사이버 공간은 “지식 공동체의 구성원과 지식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유동적 공간”이며(Lévy, 1995/2002, 40쪽), 쌍방향적인 대화를 통해 사유와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지식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식공간에서 가상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지식 공동체의 실천을 집단지성이라 명명하였다. 그는 집단지성을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역량의 실제적인 동원에 이르는 지성”으로 정의하였다(Lévy, 1995/2002, 38쪽). 즉, 집단지성은 첫째, 항상 자율적이고 변화하며, 탈영토화된 공간에서 신유목적적인 주체를 구성하고, 둘째 가치와 의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문자나 언어 너머 어디에나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공유·분배되며, 셋째 특정 이슈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회적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상호연결, 가상 공동체(virtual community)의 창출, 공동의 지적 자산이 바로 그것이다(Lévy, 1997/2000). 즉, 가상화를 통해 개인들은 가상 공동체 속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거대한 집단지성을 구축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집단지성과 상상력이 창출되는 사이버 공간은 소셜 미디어 공간과 매우 유사하다. SNS는 상상적 집단들이 자유로이 소통하는 지식공간으로서, SNS 이용자들은 자율적·자발적으로 형성되어 활동하며, 지식공간 내에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SNS에서의 특정 이슈가 종종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SNS가 가지는 공간적 속성(무한히 열린 공간)과 상호연결적 미디어 속성(리트윗, 해시태그 등의 기술적 속성), SNS 이용자들의 집단적 상상력 등을 통해 SNS 투표 인증샷은 레비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될 가치가 있다. 특히, 레비는 “집단지성의 가상세계들은 픽토그램(pictogram)이나 영상(이미지) 언어와 같은 새로운 글쓰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는데(Lévy, 1995/2002, 135쪽), 투표 인증샷은 집단적 상상력을 발현시켜 주는 이미지(영상) 언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평적, 비위계적, 지방분권적 미디어들과 사이버 공간은 상호작용적 통치구조, 분자정치로서의 직접 민주주의와 잘 맞물린다(Lévy, 1995/2002). 지식공간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은 이용자들이 공유하는 기호 세계를 통해 집단적 사고를 이끌어내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 가능성을 폭넓게 제공해 준다. 이렇듯 레비는 몰신화된 공동체 속에서 개인을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민주주의가 집단지성에 가장 적합한 정치 체제라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플루서의 기술적 상상은 창조적 상상가로서의 SNS 이용자를, 레비의 집단지성은 지식공간으로서의 SNS로 대입해 설명할 수 있다. 플루서는 이용자들이 기술적 형상에 담겨져 있는 “기계적 작동과 코드화의 메커니즘을 해독하고 상상할 수 있는 기술적 상상”(강진숙, 2010, 10쪽)을 통해 보다 자율적·주체적인 창조적 상상가라는 이용자 상을 제시한다. 즉 텔레마틱 사회에서의 SNS 이용자는 기술적 형상으로서의 SNS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속성’을 잘 해독하고 ‘상상’할 수

있는 창조적 상상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레비는 지식공간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을 다양한 사유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관계를 맺는 열린 공간으로서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SNS는 개방형 소통 구조와 플랫폼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생성·공유하며, 사회적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지성의 공간으로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SNS를 포함한 사이버 공간,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술적 형상들, 그리고 이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SNS 이용자들의 경험과 인식들이 지닌 의미구조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탐구한 플루서의 기술적 상상과 창조적 상상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레비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지성 논의를 분석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혹은 검증하고자 한다. 즉, 플루서의 이론을 통해 SNS의 사회적·기술적·미디어적 속성과 SNS 이용자의 창조적·유희적 행위를 설명하고, 레비의 이론을 통해 SNS의 공간문화적 특성과 SNS 이용자들의 실제적 역량 동원을 이해함으로써 SNS 정치참여의 실천적 함의와 그 대안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린 SNS 이용자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해 SNS 정치참여의 계기, SNS 정치참여 경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술적 상상을 통한 SNS 정치참여의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SNS 정치참여의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연구참여자들은 어떠한 계기로 SNS 투표 인증샷을 통해 정치참여를 경험하였는가?

연구문제 2. 연구참여자들은 SNS 투표 인증샷을 통한 정치참여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연구참여자들은 기술적 상상을 통한 SNS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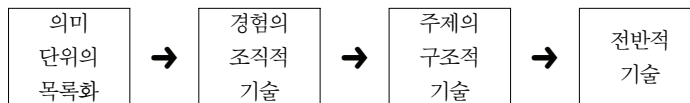
2) 현상학적 연구방법과 자료분석 절차

이 연구는 SNS 투표 인증샷 참여로 대두되는 특수한 사회현상과 개인의 경험 및 인식을 “자연스럽게 관찰·기록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맥락과 속성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강진숙, 2008, 88쪽)을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다양한 경험이나 본질적인 의식 구조를 밝히는 데 유용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 심리학적 접근을 대표하는 현상학적 연구를 차용한 이유는 SNS 인증샷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본질적 의미와 구조, 체험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SNS 이용자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물론 SNS

이용의 대안적 가능성과 정치참여라고 하는 사회실천적 함의를 미래 연구의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상학은 철학적 사상과 절차적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후설(Husserl)에 의해 주창되어 쉴러(Schiller)와 하이데거(Heidegger) 그리고 사르트르(Sartre)와 메를로-퐁티(Merleau-Ponty)에 이르는 철학적 사상에 기초한 현상학은 판단중지(epoche)와 환원, 의식의 지향성과 본질직관의 방법에 철학적 핵심이 있다. 현상학에서는 연구자들이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자신의 선입견을 ‘판단중지’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체험의 영역으로 ‘환원’하여 몰입함으로써 ‘의식’의 ‘본질적’이면서 불변의 구조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는 절차적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주의를 요한다. 주요 연구절차를 정리하면, 우선 연구자는 연구할 현상을 탐색하고, 판단중지를 통해 현상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을 괄호치기하며,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보고서 작성으로 마무리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지오르지(Giorgi), 콜라이지(Colaizzi), 벤너(Benner), 밴 매넨(Van Manen), 밴 캄(Van Kaam), 무스타카스(Moustakas) 등의 학자들에 의해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경험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고 상호주관성을 통해 생활세계에서 본질의 의미와 구조를 현상학적 기술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김분한 외, 1999).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해석보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기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무스타카스(Moustakas, 1994)의 분석절차를 차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어떤 현상이나 주제와 관련된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열거하고(자료의 수평화), 각각의 진술에 동등한 가치를 두어 반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진술들을 목록화하였다. 두 번째는 목록화한 진술들을 의미단위로 분류하고 이를 나열하여 축어적 예를 포함해 일어난 경험의 ‘조직’을 기술하였다(경험의 조직적 기술). 이어서 경험의 조직적 기술을 검토한 후 구조적 기술 방법을 사용해 의미 및 다양한 관점들을 찾고, 의미를 주제별로 묶어 현상에 대한 준거들을 다양화하였다(주제의 구조적 기술). 마지막으로 경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술해 나갔다(강진숙·장지훈·최종민, 2009, 23~24쪽 참조). 이러한 분석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출처: “2008 촛불집회 참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학생 참여자 및 1인 미디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강진숙·장지훈·최종민, 2009, 『한국방송학보』, 23권, 4호, 7~48쪽, 23쪽.

<그림 1> 무스타카스의 자료분석 절차

3) 자료 수집방법과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SNS 이용자들의 정치참여 경험 자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므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이 때 인터뷰 내용을 스마트폰과 MP3로 동시녹음하고 인터뷰 시 연구참여자의 몸짓이나 얼굴표정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면밀히 관찰하여 관찰노트에 기록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선정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에 게시한 이용자들 중에서 정보검색 도구와 눈덩이 표집 방법을 이용해 12명(남: 10명, 여: 2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연구참여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인터뷰 전에 그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연구 소개서와 심층인터뷰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연구참여 동의서를 전달하여 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사용목적과 범위, 인터뷰 내용의 비밀 유지와 연구결과의 익명성, 자율적 참여 보장을 약속하였다. 또한 인터뷰 일정과 장소는 상호 협의의 아래 결정하였고, 인터뷰는 3~4인 단위의 집단면접을 통해,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20일간 진행하였으며, 각각 평균 90분에서 1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진행은 반개방형 방법으로 진행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보완적 연구를 위해 추가 질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연구참여자의 경우, 4월 7일에 2차 인터뷰를 진행하여 답변 내용의 신뢰성을 높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별	나이	직업	SNS 이용기간	SNS 주 이용동기	주 이용 SNS	SNS 일일 이용시간*
1	남자	32세	창당참여 / 취업준비생	3년	유명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트위터	3시간 이상
2	남자	24세	창당참여 / 학생	2년	호기심, 새로운 공간의 이용과 적용	트위터, 페이스북	2시간
3	남자	25세	창당참여 / 대학생	2년	관계망 유지·확장	페이스북	1시간
4	남자	59세	대안매체 편집인	3년	사회운동의 홍보	트위터	3시간 이상
5	남자	49세	대안매체 운영 / 자영업	3년	미디어의 적용	트위터	1시간
6	남자	51세	대안매체 운영 / 방사선사	1년6개월	사회운동의 홍보	트위터	3시간 이상
7	남자	41세	학원 운영	2년	외국인과 소통, 정보(사진)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2시간
8	여자	44세	가정주부	1년	소통, 호기심	페이스북	2시간
9	남자	50세	회사원	6개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 활용	트위터	1시간 이상
10	남자	46세	회사원	1년6개월	현실정치 참여, 인맥관리, 소통과 정보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3시간 이상
11	남자	49세	프로젝트 매니저	3년	시대적 조류에 부응	트위터, 페이스북	2시간
12	여자	40세	회사원	2년	네트워크 형성	페이스북	2시간

*SNS 이용시간: 읽고 쓰고 답하는 시간들 모두 포함.

4. 분석결과

1) 의미단위 추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심층인터뷰 시 기록한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된 핵심적인 단어 및 어구를 ‘의미단위’로 선별, 1차 분류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을 의미단위로 목록화하면 총 7개의 범주로 정리된다. 즉 정치적 지향성, 자기표현의 욕구, 유희문화로서의 투표 인증샷, 열린 공간으로서의 SNS, 온라인 이용자의 오프라인 참여, 기술적 속성을 활용한 창조적 활동, 집단주의와 자정작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표 2> 참조).

<표 2> 의미 있는 진술의 목록화(수평화)

의미 있는 진술들	의미단위
정치적 관심, 능동적 정치참여, 창당, 나꼼수, 대안언론, 풍선효과, 참여정치, 직접 민주주의, SNS 낙천/낙선운동, 정권 교체, 정치적 공론장	정치적 지향성
새로운 소통방식, 자발적 의견 표시, 동시성, 전파력, 신속성, 실시간, 즉각적, 대화형, 적극적, 온라인 공론장	자기표현의 욕구
인증샷, 놀이, 즐김, 재미, 퍼포먼스, 개념트친, 독려, 약속, 실험, 게임, 이벤트, 플래시몹, 축제, 셀카, 링크	유희문화로서의 투표 인증샷
제약 없음, 누구나, 지속적 소통, 댓글, 공감, 피드백, 리트윗, RT, 공유, 퍼감, 네트워크의 장, 팔로우, 팔로잉, 인맥, 맞팔, 친구	열린 공간으로서의 SNS
온-오프라인 활동의 연계, 일상, 생활정치, 사회적 연결망, 접목, 동시성, 주체적, 관심 그룹 조직화	온라인 이용자의 오프라인 참여
유튜브, 포스팅, 동영상, SNS 연동, 그룹 개설, 검색엔진과 연동, 트윗당, 하이퍼링크, 페이스북 페이지, 해시태그, 최소한의 편집, 창작	기술적 속성을 활용한 창조적 활동
왜곡, 악용된 소통, 속임, 기만, 비방, 욕설, 악의적 댓글, 마녀사냥, 개인 신상털기, 자정작용, 자기정화, 미디어 교육, 에티켓, 책임의식, 건전	집단주의와 자정작용

2) 경험의 조직적 기술

(1) 정치적 지향성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에는 정보의 확산이나 전파력이 미흡한 미디어 환경과 기술 부족으로 정치참여 방법에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웹2.0의 등장으로 열린 공간은 정치적 공론장이 되고 이용자는 능동적으로 정치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지향성은 능동적 정치참여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는데 <사례 1>은 유명인들의 SNS 투표 인증샷 경험에 영향을 받아 직접 창당하게 되었으며, <사례 4>는 풍선효과를, <사례 12>는 참여정치를 통해 직접적·능동적·주체적인 정치참여를 하게 되었다.

“유명인들이 SNS를 통해 투표 인증샷을 올려놓아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의견을 표현하곤 합니다. 저도 그들의 트위터를 리트윗하거나 그들에게 제 의견을 보냅니다. 그러면 많은 트위터리안들이 퍼가거나 다시

리트윗합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그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금은 ‘청년당’을 창당하여 직접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1: 남, 32세)

“나꼼수 같은 대안언론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풍선효과입니다. 말을 못하게 하니깐 다른 쪽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칠게 표현되어 있지만, 내용상 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SNS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례 4: 남, 59세)

“SNS 때문에 참여정치,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졌어요. SNS를 통해 낙천·낙선운동도 하고 정권 교체도 외치면서 정치적 공론장을 형성하는 거죠. 이제 정치 얘기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르고 일반국민은 정치와 사회 문제 해결에 능동적,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이용자가 되었습니다.” (사례 12: 여, 40세)

이상과 같이 기존에는 정치적 주장을 펼칠 만한 방법이나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정치적 이슈도 노출하기 곤란했는데, 미디어 환경과 기술의 발달로 SNS가 등장하자 참여자 자신의 정치적 지향성을 표현하기 위해 투표 인증샷을 하게 되었다. 레비는 일방향적·중앙집권적 성향의 미디어에 적응되면 권위주의적·관료주의적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쌍방향적·수평적·지방분권적 성향의 미디어에 적응되면 상호작용적 통치구조와 잘 맞물린다고 설명하면서 미디어와 통치구조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Lévy, 1995/2002). 이와 함께 “실시간 민주주의는 21세기를 특징짓는 효율성과 역능을 부여하기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라고 하였다(Lévy, 1995/2002, 112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전자 민주주의는 일반 국민들이 대화형 미디어를 통해 보다 쉽고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말한다.

(2) 자기표현의 욕구

분석결과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발달로 인한 정보생산 및 유통방식의 변화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자기표현의 욕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사례 10>은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져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사례 11>도 SNS의 놀라운 전파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소신을 표현하고자 투표 인증샷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전파력 강한 SNS를 통해 투표 인증샷을 올려놓음으로써 자신의 투표 참여 행위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접근이 쉬워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의견도 바로 전달할 수 있어 SNS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SNS에 올린 투표 사진 한 장으로 전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죠.” (사례 10: 남, 46세)

“SNS는 각자 자신의 소신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합니다. 투표 인증샷과 같이 SNS를 통한 다양한 참여 활동은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사례 11: 남, 49세)

이와 같이 미디어 환경 및 기술 변화로 지식이나 정보의 전파속도가 빨라지고 소통이 자유로워져 정치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이 용이해졌고, 이를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가상세계에서 누구나 주체적·능동적·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화롭게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레비가 집단지성을 이루는 요건 중 하나로 손꼽는다. 이로써 연구참여자들은 투표 인증샷과 같이 SNS를 통해 능동적·자발적으로 자기표현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3) 유희문화로서의 투표 인증샷

정치적 이데올로기보다는 주권자로서 투표 독려를 위해 인증샷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사례 7·8·12), 그들은 다양한 투표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기존의 제도 중심적, 상의하달식 선거문화에서,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 중심적 선거문화로 바꾸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사례 1·4).

“인증샷을 올린 것은 여친 때문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와서 빨리 사진 찍어 올리고 하더라고요. 어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기보다 주권자로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저도 인증샷을 찍어 올렸습니다. 사진 찍기를 워낙 좋아해서 다양한 포즈로 셀카를 찍었고, 그 사진을 보며 여친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사례 7: 남, 41세)

“투표일 전에 투표를 약속하는 ‘손가락 인증샷 놀이’를 플래시몹 형태로 진행했는데 10·26일을 뜻하는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하여 길거리에서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려놓고 트위터로 연결하는 퍼포먼스였어요. 유명인들의 공감과 리트윗을 받으면서 투표 전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죠. 투표 당일에도 제 인증샷은 리트윗이 많이 되었어요. 인증샷이 실제 투표 참여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례 1: 남, 32세)

이와 같이 투표 인증샷은 투표권 행사라는 자발적·주체적 참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증샷 놀이’, ‘인증샷 퍼포먼스’, ‘인증샷 콘테스트’, ‘온라인 플래시몹’라는 의미단위에서 보듯이 놀이처럼 SNS 공간에서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유희적 참여였다. 즉, 자신의 투표를 ‘인증샷’으로 증명하면서 놀이처럼 투표를 즐기는 새로운 유희문화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플루서가 미디어 이용자들의 “자율적 유희를 강조한 ‘창조적 상상가’ 개념”(강진숙, 2010, 9쪽), SNS 인증샷을 기술적 상상의 결과로 설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디지털 시대에 있어 창조적 상상가로서의 SNS 이용자들은 기술적 상상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SNS를 유희하고 구성하며, SNS를 해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는 기술적 형상을 통해 투표 인증샷의 영상 언어(기술적 형상 코드)를 창조적으로 재생산하는 미학적 실험을 하였으며, 이렇게 재생산된 투표 인증샷을 SNS 이용자들이 “사이버네틱·의미부여적·유희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공동 읽기를 하게 된 것이다(Flusser, 1992/1998, 156쪽). 요컨대 연구참여자들은 권리 주체로서 투표를 독려하는 의미의 인증샷을 자발적으로 올리게 되었고, 이러한 인증샷은 유희문화가 되어 SNS라고 하는 놀이공간에 자발적으로 참여, 자신의 투표 행위를 ‘인증샷 놀이’로서 즐기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4) 열린 공간으로서의 SNS

연구참여자들은 SNS의 개방화된 소통구조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형성하는 이른바 ‘열린 공간’의 속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정치참여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진술하였다.

“SNS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의견을 동시에 전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이렇게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개방화되어 있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유하는 인증샷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례 2: 남, 24세 · 사례 8: 여, 44세)

“SNS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표현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정보 공유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 3: 남, 25세 · 사례 10: 남, 46세 · 사례 11: 남, 49세)

이상과 같이 열린 공간으로서의 SNS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댓글, 답장, 재전송 등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지식공간이 되며, 이용자도 이러한 SNS의 미디어적 속성을 적극 활용해 정치참여를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비 또한 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이 유동적이고 쌍방향적인 대화 공간이며, 이용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계 없는 열린 지식공간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진술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레비가 설파한 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나 언어를 넘어서서 집단적 발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집단적으로 갖게 됨으로써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이용자들의 지식과 정보는 상호 공유·분배되는 것이다.

(5) 온라인 이용자의 오프라인 참여

레비는 어떤 이슈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렀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집단지성이라 할 수 없으며, 다양한 지식과 역량들이 실제적으로 동원되었을 때 비로소 긍정적인 역동성이 일어나므로 이 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의 상호작용성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Lévy, 1994/2002). 이렇듯 개개의 지적 역량과 상상력이 최적으로 동원되어 공동의 지적 자산(CI)으로 발휘될 때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의 투표 인증샷이 연결망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이끌어내었는지, 즉 온라인 이용자가 오프라인 활동에까지 참여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SNS를 통한 정치참여의 발전적 방향이란 항상 연결될 수만은 없는 오프라인 활동과,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온라인 활동이 상호 접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3: 남, 25세)

“같은 생각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그룹을 개설하여 인증샷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SNS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사례 11: 남, 49세)

“SNS를 통해 투표 인증샷을 올린 건 단순한 온라인의 활동이 아니죠. 일단 저부터 투표를 한 것이고, 그 사진을 사적 공간이 아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SNS에 올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 사진을 보고 투표를 했다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인증샷도 보았다면 사람들은 이를 새로운 현상으로 인식할 겁니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함께 모이는 SNS이기에 영향력은

더욱 컸으리라 봅니다.” (사례 12: 여, 40세)

이상과 같이 SNS 투표 인증샷 참여자들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공유하며 집단적 사고를 이끌어내고 공동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증샷’을 온라인에서만 머물지 않고 인적·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일상’과 ‘정치’를 결합함으로써 투표 행사라는 적극적 정치참여 행위를 이끌어낸 것으로 판단된다. 레비가 말한 ‘피비우스 효과’처럼 가상화와 현실화가 변증법적으로 변화하면서 자발적 참여와 집단적 상상력이 실시간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음을 알 수 있다(Lévy, 1995/2002).

(6) 기술적 속성을 활용한 창조적 활동

SNS 투표 인증샷을 한 연구참여자들이 미디어의 기술적 속성을 어떻게 활용하여 창조적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인증샷 사진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더 나아가 인증샷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이를 트위터, 페이스북에 하이퍼링크를 시킨 후 이를 다른 검색엔진과 또다시 연동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하게 노출시킨 연구참여자도 있었다(사례 4·5·6). 그들은 이렇게 각기 하이퍼링크된 플랫폼들이 SNS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 제작되고 공유되고 링크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하나의 SNS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투표 인증샷뿐만 아니라 ‘서울의소리’에 투표 인증샷 관련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연결한 후 트위터에 기사를 링크 걸었어요.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면 원문이 모두 읽혀지기 때문에 많이들 읽혀줍니다.” (사례 4: 남, 59세)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다음의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event/byelections>)에 자신의 투표 인증샷을 올려놓고 하이퍼링크 시켰으며, <사례 8>은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에 인증샷 사진을 올려놓고 자신의 SNS와 하이퍼링크 시키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증샷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되도록 많은 이용자들이 그 인증샷을 보고 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랐다고 진술하였다. 즉, SNS 인증샷 사진이라고 하는 기술적 형상의 기술적 속성(단문, 하이퍼링크, Open API 등)을 활용하여 SNS의 디자인(사진)과 콘텐츠를 재구성함으로써 SNS 인증샷을 대화형 미디어로 만들고, 이용자로 하여금 투표를 독려하는 설득의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된다. 이렇듯 기술적 속성과 SNS 이용자 간에는 플루서가 말하는 기술적 상상가와, 기호·기술을 갖추고 인위적인 집단 활동을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는 레비의 집단지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모두 이용하되, 다양한 검색경로와 틀을 이용해 블로그, 카페, 아고라 등의 다른 플랫폼에도 올려놓고 공유했습니다.” (사례 8: 여, 44세)

이상과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SNS의 다양한 기술적 속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창조적 상상을 통해 정치참여 활동을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트위터는 140자의 제한된 글쓰기, 단순한 UI, 공유·확산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그리고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한 접근 경로의 개방적 확장 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관계 형성과 유지, 정보 공유 및 참여의 가능성이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이원태, 2010). 이러한 기대는 스마트폰의 기술적 속성을 고려할 때,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스마트폰의 높은 이동성과 실시간성은 SNS 이용자의 역할을 “기계적 작동과 코드화의 메커니즘을 해독하고 상상할 수 있는 기술적 상상가”로서(강진숙, 2010, 10쪽)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7) 집단주의와 자정작용

투표 인증샷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집단지성의 참된 발현인가, 아니면 군중심리에 의한, 비조직화된 대중들의 집단적 선동 또는 집단극화인가? 연구참여자들은 SNS를 통해 자율적·능동적으로 정치참여 활동을 하였지만, 그 과정상 ‘왜곡’이나 ‘속임’, ‘마녀사냥’과 같은 의미단위의 부정적 경험을 인식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정작용’, ‘미디어 교육’과 같은 의미단위의 발전적 대안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대화형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집단주의와 자정작용은 하나의 네트워크적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반되지만 그 안에 대안적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이 두 가지 특성에 대해 연속선상에서 함께 진술하였다. 먼저,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정보의 왜곡이나 잘못된 비난에 대해 확인하거나 차단할 방법이 없어 SNS가 악용된 소통구조로 바뀌는 부정적 경험을 인식하였다고 하였다(사례 1·2·4·8·9·10·11).

“제가 투표를 독려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인증샷을 올렸을 때 여당 후보 지지자는 비난성 댓글을 보냈어요. 인증샷에 참여한 연예인들도 비난 여론을 많이 받았습시다. 정치하려고 청년들을 선동시킨다는 거죠. 이런 악의적 댓글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때는 너무도 막막했어요.” (사례 1: 남, 32세)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의 이용자들이 SNS에서 만나게 되다 보니 일정 부분 공감하는 내용도 있지만,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과 비방이 난무할 때가 있죠. 마녀사냥식이 되기도 하구요. 악용된 소통의 위험성을 많이 느꼈어요.” (사례 2: 남, 24세·사례 9: 남, 50세)

플루서와 레비는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모두 지적하였는데, 플루서는 기술적 형상에 의한 대중적 기만에 빠질 위험성, 레비는 획일적 전체성에 빠질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즉, SNS 투표 인증샷과 같은 대중적 기술적 형상에 대해 메시지 수용자들이 코드를 해독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게 하는 대중적 기만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SNS 이용자들의 개별적 특성과 자율성, 자정작용에 중요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SNS 이용자들은 정보의 왜곡이나 전체주의적 오류를 어떻게 극복하였을까? 이에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SNS라고 하는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집단적 지성들에 의한 자정작용, 자기 정화작용의 힘을 믿는다고 진술했으며(사례 3·4·7·8), 이는 레비가 집단지성의 형성에 있어 자정작용을 매우 중요한 의미로 손꼽은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사례 4>는 SNS 이용자가 능동적·자발적 주체라는 측면에서 보다 본질적인 극복방법으로 미디어 교육을 제시하였다.

“때로는 비방이나 악의성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런 글들은 별로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리트윗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SNS의 자정작용으로 인해 확산이 덜 되거나 이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례 3: 남, 25세)

“SNS에도 에티켓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올바른 미디어 이용 교육을 시켜야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사례 4: 남, 59세)

이상과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SNS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용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 정보의 왜곡과 집단주의 같은 부정적 경험들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특히, 사진은 대중적 기술적 형상이므로 별도로 해독되지 않고 그대로 수용되기 때문에 사실의 왜곡, 집단주의나 집단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플루서가 기술적 형상이 ‘대중적 기반’을 통해 수용자들의 해독을 차단하고 현실의 문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전체주의적 오류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플루서의 논의대로 SNS라고 하는 “대화형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는 정보의 유익함이나 유해함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발생”함에 따라(강진숙, 2010, 7쪽) 기술적 형상으로 네트워크화된 사회, 즉 텔레매틱 사회에 있어 이용자는 창조적 상상, 기술적 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미디어 교육을 통해 이용자는 기만당하지 않고 스스로 해독할 줄 아는 기술적 상상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3) 주제의 구조적 기술

진술된 의미단위들을 범주화한 주제들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발적 표현 동기, 소통과 현실참여 경험, 기술적 상상을 통한 창조적 이용이다.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진술된 의미단위들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주제별로 묶어 현상에 대한 증거들을 다양화하고, 범주화한 주제들을 구조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표 3> 진술된 의미들의 주제 범주화

의미단위	주제 범주
정치적 지향성	자발적 표현 동기
자기표현의 욕구	
유희문화로서의 투표 인증샷	
열린 공간으로서의 SNS	소통과 현실참여 경험
온라인 이용자의 오프라인 참여	
기술적 속성을 활용한 창조적 활동	기술적 상상을 통한 창조적 이용
집단주의와 자정작용	

(1) 자발적 표현 동기

연구참여자는 정치적 지향성과 자기표현의 욕구에 기인하여, 또는 투표 인증샷이라고 하는 유희문화를 즐기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이러한 자발적 표현 동기는 투표 인증샷의 참여 동기,

즉 SNS의 정치참여 동기가 되었다. 이때의 자발적 표현과 능동적 참여는 SNS 이용자의 주요 속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러한 속성은 SNS 이용자들만의 자율적 유희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다양한 참여방식, 접근 가능성 높고 소통이 원활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미디어 이용자는 자기표현의 욕구가 커지게 되고 참여정치,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능동적인 정치참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즐기듯이 SNS에 자발적으로 투표 인증샷을 올렸는데 ‘인증샷 놀이’라는 의미단위가 말하듯이 유희적 선거문화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효능감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SNS 이용자로서의 연구참여자가 SNS를 통해 투표 인증샷이라고 하는 창의적 미디어 이용을 자발적·능동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플루서의 ‘창조적 상상가’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된다. 참여자들은 각자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인증샷에 참여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치참여를 표현하고 이루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참여자들은 SNS의 개방형 지식공간을 능동적·자발적으로 유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며,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재생산하였던 것이다.

(2) 소통과 현실참여 경험

투표 인증샷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자신의 참여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 참여자들은 ‘소통과 현실참여를 경험’하였다고 진술했다. 이는 앞서 분석된 개방·소통·공유·관계의 속성을 지닌 ‘열린 공간으로서의 SNS’ 이용자가 ‘오프라인에의 현실참여’를 경험한 사례를 근거로 주제를 범주화하였다.

SNS가 개방화된 소통의 공간에서, 정보의 공유와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으며, 댓글, 공감, 재전송, 답장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들 간의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팔로우, 팔로잉, 인맥 추가, 맞팔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장, 즉 관계의 장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화형 미디어를 통해 SNS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펼치고, 타인과 소통하고 공유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유사한 인맥을 형성하는 새로운 관계의 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는 SNS라고 하는 열린 지식공간, 사이버 공간을 통해 투표 인증샷을 만들어 올리고,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하였고, 오프라인에서의 투표 참여라는 사회적 역량을 표출하였다. 요컨대, 참여자는 가상공간인 SNS를 통해 집단지성과 상상력을 구축함으로써 투표를 독려하는 사회적 역량으로까지 발전시킨 것이다.

(3) 기술적 상상을 통한 창조적 이용

연구참여자들이 SNS를 통해 기술적 상상을 어떻게 발현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술적 상상을 통한 SNS의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조명해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진술한 ‘기술적 속성을 활용한 창조적 활동’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기술적 상상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겼는지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이 부정적으로 경험한 ‘집단주의’를 통해 집단지성 혹은 기술적 형상이 낱기 쉬운 전체주의적 오류에 대한 비판적 인식들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연구참여자들은 ‘자정능력’과 미디어 교육을 통해 기술적 상상과 창조적 상상의 중요성을 재인식한다는 점에서 주제를 범주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투표 인증샷을 올리기 위해 SNS가 가지는 기술적 특성, 즉 단문 글쓰기, 하이퍼링크, 단순한 UI,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 Open API를 통한 개방형 접근 등을 활용하여 기술적 형상으로서의 SNS를 자유롭게 유희하고 창조적으로 이용하였다.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다양한 영상까지도 제작하여 유튜브, 블로그, 카페, 또 다른 대안매체에 올려놓고 하이퍼링크를 걸어 SNS를 연동시키는 등 기술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참여 의사를 밝히고 다른 이용자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것이 바로 플루서의 기술적 상상을 통한 창조적 이용인 것이다.

그러나 플루서가 경고한 대로 참여자들에게는 그 과정 속에서 정보의 왜곡과 집단주의라는 부정적 경험들이 발생하였다. 바로 ‘투표 인증 사진’이라고 하는 기술적 형상이 ‘대중적 기만’을 통해 수용자들의 해독을 막고 현실 문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전체주의적 오류와 유사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위키 방식과 같이 다방면의 인적 네트워크와 지식이나 정보가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는 등의 자정기능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 수정과 검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참여자는 창조적 상상, 기술적 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미디어 교육을 통해 보다 본질적·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전반적 기술

투표 인증샷을 통한 SNS 정치참여 경험에 깔려 있는 의미와 본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흐름으로 분석된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자발적 표현 동기’로 투표 인증샷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디지털 기술과 웹 환경의 발달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개방형 미디어, SNS를 만나면서 정치참여를 위한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투표 인증샷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투표 인증샷 놀이’라는 유희로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SNS의 개방형 지식공간을 자발적으로 유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이용자와 서로 공유하며 투표 인증샷을 통해 정치참여 행위를 재생산하였던 것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SNS의 열린 공간에서 자유로운 ‘소통’을 하며, 지식공간에서 이슈화된 투표 독려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다시 SNS에 그 내용을 하이퍼링크하고 공유함으로써 ‘현실참여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참여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레비가 제시한 집단지성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인식하게 된다. 즉, 능동적·자발적으로 형성된 주체로서의 ‘참여자’가, SNS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공유되는 공동 문제인 ‘투표 참여’를 특정 이슈로 제기하며 직접 투표소 현장에서 인증샷을 찍음으로써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인증샷을 SNS나 다른 매체와 연동하여 게시해 다른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표 인증샷 참여자는 SNS의 기술적 특성을 활용한 창조적 활동을 통해 ‘기술적 상상’을 이루게 되었다. 즉, 기술적 상상을 통해 SNS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기술적 상상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경험 외에 정보의 왜곡이나 집단주의 같은 전체주의적 오류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SNS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정화되는 자정기능으로 인해 참여자는 창조적 상상, 기술적 상상을 구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기술해 볼 때, 투표 인증샷을 통한 SNS 정치참여자는 자발적 표현 동기를 가지고, 투표 독려와 소통 과정을 ‘투표 인증샷 놀이’라는 유희문화와 현실참여로 경험하며, SNS의 기술적 상상을 통해 창조적 이용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투표 인증샷을 통한 SNS 정치참여’ 현상을 놓고 실제 참여한 SNS 이용자들의 참여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 인증샷을 통해 SNS 정치참여를 경험한 이용자들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심층인터뷰하고 수집된 자료는 무스타카스의 분석절차를 적용,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분석단계별로 가능한 다양한 경험과 관점, 내면 깊이 있는 심리적 측면, 그리고 실천적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상학적 연구는 본 연구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와, 경험 및 인식의 심층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기술적 상상을 통한 SNS 정치참여의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분석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디지털 기술과 웹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달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지향성을 높이고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투표 인증샷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유희적 선거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열린 공간으로서의 SNS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투표 참여’를 특정 이슈로 제기하며 오프라인 현장에서 직접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놓음으로써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참여자는 SNS의 기술적 특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증샷과 같은 기술적 상상, 창조적 활동을 수행한다. 이 때 참여자들은 레미가 집단지성에서 빠지기 쉬운 오류로 지적한 ‘전체주의’, 플루서가 대중적인 기술적 형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제시한 ‘대중적 기만’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SNS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정화되는 자정기능으로 창조적 상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기술적 상상을 통한 SNS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투표 인증샷을 통해 정치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의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나아가 기술적 상상을 통한 SNS 정치참여의 가능성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정치참여를 ‘선거운동에의 참여’로 구체화하고, 정치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를 투표 인증샷에 참여한 SNS 이용자 연구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선거를 정치참여로 대체하기에는 그 범위나 역할, 기능이 다양하며, 인증샷을 가벼운 놀이로 인식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반면 정치적 지향성이 높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일반적인 SNS 이용자로 확대하기에도 무리가 있었다. 또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다른 플랫폼에 인증샷을 올리고 SNS는 단지 하이퍼링크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도 SNS의 기술적 속성 중 하나이지만, 순수하게 SNS 위주의 소통방식이라 보기에는 엄격함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SNS와 선거’라고 하는 매우 실제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본질적인 경험과 의식 구조를 분석해 SNS와 전자민주주의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로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SNS의 종류에 따라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도 상이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정보 확산에 강한 트위터 이용자와 관계지향적 성향이 강한 페이스북 이용자 간의 정치참여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SNS 주 이용동기가 커뮤니케이션이나 홍보인 경우 주로 트위터를 사용하는 한편, 관계 형성인 경우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었다. 트위터 주 이용 연구참여자는 정치적 소신을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과 SNS 이용동기를 SNS 주 이용매체와 상호 연관시키는 연구도 유의미하다. 둘째,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년 4·11 총선과 12·19 대선의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 인증샷과 투표율, 연령층, 참여 동기 및 이용행태 등을 다양하게 비교연구하는 것도 이 연구의 연장선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표 인증샷에 참여한 SNS 이용자들은 자신의 기술적 상상에 기초하여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SNS를 유희하고 창조하였다. 더욱이 SNS 이용자들은 다양한 인증샷을 통해 자신만의 미학적 의미들을 재생산하였다. 여기에 온오프라인이 통합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때 기술적 상상을 통한 SNS 정치참여의 가능성은 확대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강병한 (2011. 10. 25). ‘선거날 투표 독려글’ 안철수는 불법, 김연아는 합법. 『경향신문』. [On-line], Availabl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50005345&code=910110
- 강진숙 (2006). 탈문자시대의 미디어 문화와 이용자에 관한 이론적 연구: 포스터, 플루서, 비탈리오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51호, 5~33.
- 강진숙 (2008). 한국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방법 적용사례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3호, 81~113.
- 강진숙 (2010). 1인 미디어로서의 블로그 이용문화와 기술적 상상: 플루서의 코무니콜로기론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8권 3호, 2~33.
- 강진숙·장지훈·최종민 (2009). 2008 촛불집회 참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학생 참여자 및 1인 미디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23권 4호, 7~48.
- 김분한·김금자·박인숙 외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권 6호, 1028~1040.
- 김지연 (2011). 『블로그와 트위터 이용자의 소셜 미디어 출판에 대한 연구: 피에르 레비(Pierre Lévy)의 집단지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정호·이동훈 (2011). 소셜 미디어로서 마이크로 블로그 공론장의 정치적 의사소통에 대한 탐색적 연구: 네트워크 동질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309~330.
- 서희정·이미나 (2012). 트위터 투표 인증샷을 통해 본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와 선거 문화. 『한국언론학보』(제1차 기획연구), 399~420.
- 양홍주 (2012. 4. 11). 여전히 바빴던 SNS… “투표” 트윗 47만건, 인증샷 시간당 7000건. 『한국일보』. [On-line], Available: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4/h2012041123072421000.htm>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2011. 10. 25). 유자넷, 투표참여 방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초법적 유권해석,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 선관위의 임무인가. 『참여연대』. [On-line], Available: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839535>
- 윤성이 (2008). 17대 대선에 나타난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2 집 2호, 203~230.

- 윤성이 · 송경재 · 민희 (2010). 인터넷 선거규제에 대한 네티즌 의식: 누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가? 『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181~208.
- 이미나 · 서희정 · 김현아 (2012). 투표인증샷 분석: 자기표현과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보』, 56권 6호, 309~330. 246~277.
- 이원태 (2010). 『트위터의 정치사회적 영향과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10-06).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임혁백 (2011). 신유목사회의 출현과 정치참여의 변화: 일반적 참여양태와 국제적 비교. 『평화연구』, 19권 2호, 7~37.
- 장우영 (2008). 인터넷과 선거캠페인: 17대 대선 UCC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42집 2호, 171~201.
- 장우영 (2010). 국내의 온라인 선거규제 제도의 특징과 우리나라 온라인 선거규제의 과제. 『한국정당학회』(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5~44.
- 조진만 (2011). 정보화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 회보』, 45집 5호, 273~296.
- 탁진영 (2011). 지역선거의 젊은 유권자 참여확대에 관한 연구: SNS 활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30집 1호, 313~342.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조홍식 · 정선욱 · 김진숙 · 권지성 역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Flusser, V. (1983). *Für eine philosophie der Fotografie*. Göttingen: European Photography. 윤종석 역 (1999). 『사진의 철학을 위하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Flusser, V. (1992). *Die Schrift: Hat Schreiben Zukunft? (4th ed.)*. Göttingen: European Photography. 윤종석 역 (1998).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서울: 문예출판사.
- Flusser, V. (1995). *Lod der Oberflächlichkeit, für eine Phänomenologie der Medien*. 김성재 역 (2004). 『피상성 예찬: 매체현상학을 위하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Flusser, V. (1996). *Kommunikologie*. Fischer. 김성재 역 (2001). 『코뮤니콜로지: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Flusser, V. (1997). *Die Revolution der Bil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김현진 역 (2004). 『그림의 혁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Hague, Barry N., and Brian D. Loader. eds. (1999). *Digital Democracy: Discourse and Decision Making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Routledge.
- Lévy, P. (1994). *L'intelligence collective*. Perseus Books Group. 권수경 역 (2002). 『집단지성: 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서울: 문학과학사.
- Lévy, P. (1995). *Qu'est-ce que le virtuel?*. Decouverte. 전재연 역 (2002). 『디지털 시대의 가상현실』. 서울: 궁리.
- Lévy, P. (1997). *Cyberculture*. University of Minnesota. 김동윤 · 조준형 역 (2000). 『사이버 문화: 뉴 테크놀로지와 문화협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울: 문예출판사.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Sustein, C. (2001). *Republic.Co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irilio, P. (1989). *Esthétique de la Disparition*. 김경은 역 (2004). 『소멸의 미학』. 서울: 연세대 출판부.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SNS Users: Focusing on by-election for mayor of Seoul in 26. Oct.

Jin-Suk Kang* · Ji-Yeon Kim**

This study is aimed to draw the meaning and possibili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SNS users through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participation and awareness of authentication shot for vote of the users. Especially, the reason for focusing on ‘SNS vote authentication shot’ is because the creative imagination of the users and the meaning and possibility of collective intelligence are drew while citizens are participating in political activities for themselves. Theory resources are based on technical imagination of Vilém Flusser that is concerned with users and political practice in the New Media Era, creative imaginer and discussions of collective intelligence of Pierre Lévy.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it is aimed to select the SNS users experienced in authentication shot for the by-election for mayor of Seoul in 26. Oct. 2011 and to use phenomenological analysis model on materials collected after in-depth interview. The researchers take contextual circumstance into consideration for experiences of study participants sticking to SNS users’ opinions and intersubjectivity and approach prejudice of their experiences to untouched structure of phenomenon and meaning. It is because a phenomenological study exploring “the own meaning of ‘die Sachen’” is ‘strict study’ and method focusing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SNS users itself.

Keywords: technical imagination, creative imaginer, collective intelligence, SNS vote authentication shot, phenomenology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jskang1@cau.ac.kr)

** Doctoral Student,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pmgjykim@hanmail.net)